

‘인프라 공룡’ 협세 퍼가기 제동… 1구간 市 매입 발판 마련했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의미와 파장

투기성 행태 막아내고 최대 1조원 절감 기대

맥쿼리 투자 전국 민자 SOC사업 출소송 예고

광주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맥쿼리)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막대한 시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 전국 자체단체 중 최초로 거대 자본의 투기성 행태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승소로 광주시가 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할 수 있는 발판까지 구축함에 따라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대까지 시민세금을 지켜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잘못끼운 첫 단계=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km)을 시비 1132억원, 민자 1816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 민자를 투자한 맥쿼리는 100% 출자한 광주 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2001년부터 2028년 까지 28년간 해당 구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맥쿼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 예상 통행량의 85%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 실제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보다 훨씬 못 미쳐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보전금(2012년 기준 203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는 당시 광주시에서 통행량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등 잘못 추산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강 시장 뚱심의 소송전 돌입=전국 자체단체 중 첫 사례인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2010년 7월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토록 지시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이 타인자본비율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비율을 축소시킨 점과 타인자본의 이자율을 증가시킨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강 시장은 자기자본구조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낸 뒤 원상복구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강 시장은 “당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면서 “취임 초기 바쁜 일정을 쪼개고 꾼게 직접 관련 법조항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일자

1997~2000년	대우건설 컨소시엄 2948억원(민자 1816억원, 시비 1132억원) 들어 원공
2003년	광주 순환도로투자, 운행권 인수
2003.3.28	광주 순환도로투자,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하는 1차 자본구조 변경으로 타인자본비율 93.07%로 증가
2004.10.24	타인자본 중 선순위 저임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올리는 2차 자본구조 변경
2011.10.4	광주시, 실시협약 체결 당시(2010년 12월 19일)의 자본구조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생긴 이자를 시민이용자에게 귀속으로 감독명령
2011.11.25	광주 순환도로투자, 감독명령에 불복해 종양행정심판청구
2012.7.10	중앙심판위원회,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2012.7.23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지법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3.2.20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2013.12.22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고법에 항소
2014.1.20	광주고법, 조정 불성립 판단
2014.1.9	광주고법, 자본구조 환원 명령은 적법, 이익 귀속 명령은 부적법 판결 광주시 사실상 승소

원의 재정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는 곧바로 민간투자자에게 자기자본비율과 이자율을 원상복구하도록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투자자가 불응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광주시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는 최근 맥쿼리 자본이 서울도시철도 9호선(1단계) 사업에서 철수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시는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028년까지 8000억원대 재정 경감=시는 일단 이번 승소로 왜곡된 자본구조를 바로잡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순환도로를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하는 데 2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투자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 가치의 80% 금액을 주고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9일 광주시와 맥쿼리의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이 열린 광주고법에서 열린 취재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설률의 가치를 275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입 방식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건전한 민간투자자에 위탁 운영도록 하는 방식,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맥쿼리측은 매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맥쿼리측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검토중이며 대법원 재판결과에서도 패소하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겠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매입에 이르기 전에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져간 1401억원도 되찾아 오겠다”=재판부는 이날 “이익귀속” 명령 부분은 귀속할 상대방, 대상금액, 산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심 판결과 달리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광주시가 맥쿼리측에 그동안 자본구조 왜곡을 통해 주가로 가져간 1401억원도 내놓아야 한다고 명령한 것에 대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1401억원의 지급 대상 등을 명확히 해 다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타지역 민자사업도 출소송 예고=맥쿼리가 참여한 타지역 민자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판 결과가 광주 제2순환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등 맥쿼리한국인프라가 투자한 전국 12개 민자사업

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 지역 민자사업 부서도 이번 소송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자체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13억 vs 3021억’ 맥쿼리-광주시 갈등

원상회복 자본 이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맥쿼리 자본의 제2순환도로 1구간 철수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맥쿼리측은 일단 상고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 운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맥쿼리측이 법원의 원상회복 법원을 다르게 해석한데다 추정금액의 차이도 너무 커 향후 철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맥쿼리측은

2000년 최초 자금조달 당시 자기자본금 543억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축소로 2003년 130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차액인 412억 5000만원만 채워넣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최초 자기자본금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자기자본금 뿐 아니라 타인자본, 이자 등을 포함해 3021억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시는 맥쿼리측이 지난 2000년 당시 총 민자투자액인 1816억원 중 1273억원(70.09%)에 이르던 타인자본을 2004년 1752억 6000만원(93.07%)으

로 높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와 출자자 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높이면서 발생한 적자, 특히 매년 일정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협약을 어기면서 발생한 미상환액 등을 합하면 3021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주장처럼 맥쿼리측이 자

본구조를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자체가 어려워 결국 결국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맥쿼리측의 주장은 억지를 부리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프라 공룡’ 맥쿼리는

호주에 본사를 둔 맥쿼리는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인프라 공룡’으로 불린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맥쿼리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은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등 총 13곳이다.

맥쿼리는 부산항신항 2·3단계를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11곳에서 70~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적용받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는 일정 통행량 이하일 경우 재정

보전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일각에서는 민간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뿐 아니라 우면산 터널, 백양 터널, 수정산 터널 등의 적자보전과 관련해 해당 자체단체는 맥쿼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 소송결과를 근거로 자체단체들의 협약 변경 요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다른 영화도 제작됐다. 맥쿼리 측은 지난 해 지하철 9호선에서 철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맥쿼리 투자 현황

사업명	투자액(억원)	사업시행기간(개시)	보장기준	주무관청
13개 사업	15,906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두암IC~소태IC)	1,903	28년(2001.1월)	통행료수입 85%	광주시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810	30년(2004.12)	9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99	30년(2000.12)	80%(20년보장)	국토부
우면산터널	203	30년(2004.1)	79%	서울시
서울도시철도 9호선(1단계)	744			”
백양터널	27	25년(2000.1)	90%	부산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2,700	30년(2002.12)	82%(20년보장)	국토부
수정산터널	1,095	25년(2002.4)	90%	부산시
미창대교	1,128	30년(2008.6)	75.8%	경남
용인~서울 고속도로	1,348	30년(2005.7)	70%	국토부
서울~춘천 고속도로	1,360	30년(2009.7)	60~80%	”
인천대교	1,639	30년(2009.10)	80%	”
부산항신항 2·3단계	2,594	29.3년(2012.1)		해수부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햅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분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학생부 스피치 교육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